

#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분석

천 경 록 (광주교대)

## <차 례>

- I. 연구 필요성과 내용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결과, 논의
- IV. 결론

## I. 연구 필요성과 내용

국어교육이 학문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연구자 사이에 보편화되고 발달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국어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즈음에서 국어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연구 방법론을 점검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지난 세기 동안에 국어교육 연구 분야는 연구 주제, 학술 논문, 학술지 등에서 많은 성과가 집적되었으며 연구자 수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게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어교육이 학문의 한 분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제한하여, 양적 연구 방법의 개념과 특성, 의의(좌표), 사용 현황, 연구 수준, 양적 연구를 둘러싼 문제제기와 오해 등을 해명하면서 양적 연구 방법

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내용 분석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국어교육관련 주요 학술지 두 종류를 선택하여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발표되었던 국어교육 관련 연구물 219편을 분석하여 양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 논문의 수를 파악한 다음, 이들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양적 연구의 개념과 특성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양적 연구의 사전적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1995)가 펴낸 『교육·측정·평가·연구·통계 용어사전』에 의하면 양적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 실증주의적 접근 방식에 근거를 두고 연구자료의 수집부터 결과분석까지를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연구 방법.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량화 될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한 다음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근거해 결론을 내린다.

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필자는 국어 교육 연구의 양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란 “국어교육 이론과 국어교육 실제 사이를 중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자료의 수집과 처리, 해석 방법이 객관적이며 자료를 수량화하여 연구 문제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경험적 연구 방법”을 말한다. 양적 연구는 실험연구, 상관연구, 조사연구, 발달연구, 분석연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대략 다섯 가지다. 첫째, 국어교육의 양적 연구는 국어 교육의 이론과 국어교육의 실재를 중재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요컨대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국어교육의 모든 연구(research, study)는 국어 교육의 이론(theory) 구성과 실제(practice)의 해명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국어교육의 양적 연구는 국어교육 실체에 대한 자료의 수집, 처리, 해석이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질적인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 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양적 연구는 자료(data)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 가능한 객관성을 지향한다. 제3자가 볼 때, 자료의 객관성이 높을수록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자료는 사실(fact)을 정보화 한 것을 말한다.

셋째, 자료를 수량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적 연구는 자료를 수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수량화한 자료는 가공하기가 쉽다. 따라서 양적 연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과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넷째, 자료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이다. 양적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인정한 통계적 오차의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결론을 내린다. 국어교육에서는 보통 표본의 크기에 따라 유의도 0.05~0.1%의 신뢰 구간을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경험적 연구의 방법이란 점이다. 이 점은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 주장을 하는 개념 연구(conceptual inquiry)와 구별된다. 양적 연구는 근본적으로 귀납적 논리 구성을 취한다.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여러 모로 비교된다. 총론적 수준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에 대한 비교는 조영환(1998)이 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연구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연구 논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며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구분한 바 있다(p.6).

양적 연구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그 특성을 질적 연구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 비교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
| 가설 점점적이다.         | 가설 생성적이다.           |
| 가설의 기각과 수용이 목적이다. | 탐구 현상을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
| 대표성이 있는 표집을 사용한다. | 특수 표집도 용인된다.        |
| 무선적으로 표집한다.       | 소규모로 표집한다.          |
| 통계집단을 둔다.         | 통계집단이 없다.           |
| 의도적인 연구 집단을 둔다.   | 자연상태에서 관찰을 한다.      |
| 미리 모든 변인을 결정한다.   | 의외의 결과를 발견하려 애를 쓴다. |
| 변인의 인과 관계를 탐색한다.  | 아직 주의를 끌지 못했던 새로운 것 |
| 통계적인 추정을 한다.      | 을 발견하려 한다.          |
| 자료를 양화한다.         | 자료의 양보다는 질에 관심이 있다. |
| 가능한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된다.      |
| 상관관계를 탐색한다.       | 구체적 자료를 사용한다.       |
| 이론이나 프로그램의 효과 증명  |                     |
| 구체적 자료를 사용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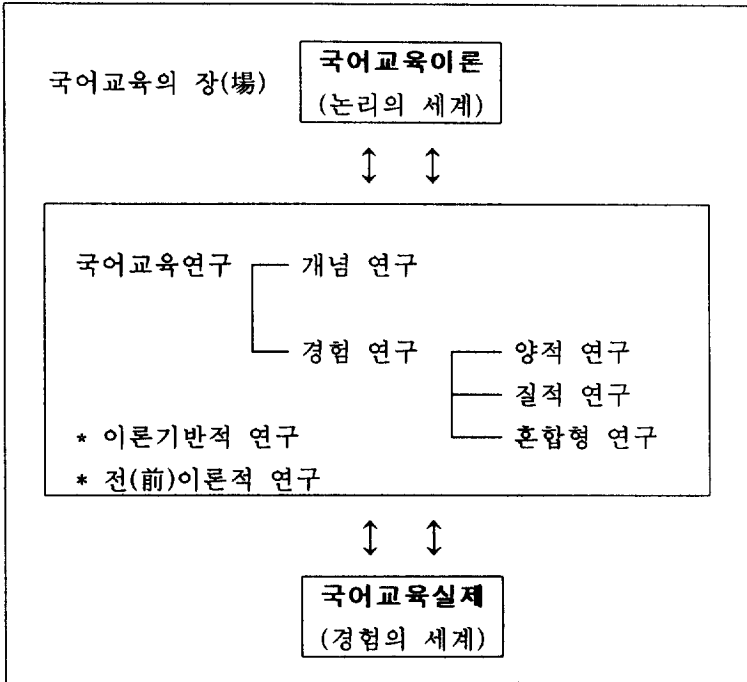
## 2. 양적 연구의 좌표와 연구의 분류

양적 연구를 정의하고 특성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연구를 분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의 현황과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의 위치(좌표)를 먼저 찾아야 한다. 국어교육 현상과 연구 방법을 관련시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1]은 국어 교육의 장과 논의의 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세 수준은 긴밀히 얽혀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국어 교육은 국어교육의 장(場) 속에서 진행된다. 국어교육의 장은 크게 논리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로 구성된다. 국어 교육 이론은 논리의 세계에서 진행된다. 국어 교육 실체는 경험과 事實의 세계에서 수행된다. 국어교육 연구는 이 둘 사이에 걸쳐 있다. 국어교육의 '연구'는 국어교육의 '이론'을 수정, 보완, 궁

정, 부정, 지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어교육의 '연구'는 국어교육의 '실제'를 견인하고 안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통제하게 된다.

[그림1] 국어교육의 장과 논의의 세 수준



국어교육의 연구는 다시 둘로 그 성격이 나누어질 수 있다. 국어교육의 이론이 과연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국어교육의 이론이 있다면 위와 같은 모형에 의거하여 연구와 실제의 배경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연구는 국어교육의 '이론기반적 연구(theory-based research)'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뚜렷한 이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국어교육 연구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이 경우, 국어교육 연구는 이론의 형성까지 담당하면서 연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를 국어교

육의 '前이론적 연구(pre-theoretical research)'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 연구를 분류하는 방법은 분류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sup> [그림1]은 국어 교육에서 연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는 이론과 실체를 매개하고 강화한다. 필자는 연구 방법에 중심을 두고 크게 개념 연구(conceptual inquiry)와 경험 연구(empirical research)로 나누고자 한다. 경험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sup>2)</sup> 혼합형 연구'로 구분하고자 한다. 혼합형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연구'와 '연구가 아닌 것'은 구별이 되어야 연구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연구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연구 주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잡고, '이론'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연구가 선행 연구의 재탕이 되거나 이론으로서(이 때는 '개념 연구'가 되겠지만) 치밀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국어 교육의 실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이론과 실체는 다르다'는 비판을 사게 된다. 이론이 실제와 다른 게 아니라, 이론의 법칙성과 현실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실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상 많은 연구들은 어느 한 방법의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 위에 있다. 그만큼 연구물을 분류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필자가 제안한 연구의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한다.

1) 참고로 이종승(1989:131)에서는 교육 연구를 크게 記述的 연구와 實驗的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2) Flood et al.(1991:124-131)도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결과, 논의

#### 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분석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국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앞 장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체 논문의 수에 비해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으며, 이중에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의 질적 수준을 발표자가 분석하여 보았다.

#### 가. 분석 대상 기간

분석 대상 기간을 1991년부터 2000년까지로 잡은 이유는 국어교육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년은 국어교육이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다. 무릇 어떤 연구 분야가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연구 분야, 그 분야의 전문 용어, 학술지, 개론서 등이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은 이런 변화를 충족시키는 변화가 있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국어교육 전공의 박사 과정이 생기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본 학회가 창립되면서 『국어교육학』이라는 전문 학술지가 1991년에 새롭게 나왔으며, 다음과 같이 접미사 ‘-학’을 사용하는 저서들이 출판되었고, 국어교육 관련 전문 용어 사전도 출판되었다.

『국어교과학의 새로운 지평』, 김대행(1995).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어교육학개론』, 최현섭 등(1996). 삼지연.

『국어교육학 원론』,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1996). 교학사.

『국어교과학 연구』, 이인제(1997). 한국교육개발원.

『국어교육학』, 이삼형 등(2000). 소명출판.

『국어교육학 사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대교출판.

### 나. 분석 대상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술지는 '한국국어교육연구회'에서 출간한 『국어교육』 73·74(1991)호부터 103호(2000)까지와 '국어교육학회'에서 출간한 『국어교육학』 1집부터 10집까지였다.<sup>3)</sup> 두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국어교육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등재되어 있다.<sup>4)</sup> 『국어교육』에 실린 논문은 편집자가 국어교육으로 세부 분류한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어교육』은 하위 영역을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영역으로 하위 구분하여 논문을 실는 종합학술지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 학술지 중에서 '국어교육' 영역에 분류된 논문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sup>5)</sup> 그러나 『국어교육』에서 '국어교육'으로 분류된 글 중에 일부는 발표자가 보기에 연구 논문이라 보기 힘들고, 참고 문헌도 없으며 단순히 교육 사례를 주관적으로 소개한 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정영훈(1994)의 「삶을 가꾸는 글쓰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같은 글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라 보기 힘들었으며 참고문헌도 없었다. 이런 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어교육학연구』에 실린 논문은 전체가 분석 대상이었다. 이 학술지는 지향하는 바가 이른바 '국어교육' 분야로 주제를 제한하여 논문을 실기 때문이다. 국어학 관련 논문을 싣더라도 순수 국어학 논문이라기 보다는 학교 문법 등과 관련지어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총 219편의 논문을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 
- 3) 여기서는 각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은 모든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느냐와 특정 대학만을 표집하느냐 등의 측면이 있고, 시간 관계와 연구 여건, 경비 등의 문제로 유보하였다. 필요성이 제기되면 나중에 추진해 보고자 한다.
  - 4) 학술진흥재단에는 이 두 학술지 외에도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한국국어교육학회에서 출간한 『새국어교육』이 등재되어 있으나, 발표자가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5) 『국어교육』은 게재 논문의 편집 순서를 '국어학→국문학→국어교육' 순으로 해 오다가 1994년 83·84호부터 일관되게 '국어교육→국어학→국문학'으로 순서를 바꾸어 편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집진들이 국어교육 분야의 주제를 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 다. 분석 절차

앞에서 연구 방법의 분류를 크게 개념 연구와 경험 연구로 나누고, 경험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혼합형 연구로 나눈 바 있다. 주요 분석 관점은 두 학술지에서 양적 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는 연도 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표되고 있는지 정도였다. 사실 논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연구자들마다 각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논문을 쓰기 때문이다. 분석할 때 적용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념 연구로 분류한 논문은 예컨대 최영환(1995)의 「언어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에서처럼 주로 연역적인 방법에 의해 논리를 전개하는 논문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사용 능력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능과 전략간의 개념 관계를 중심으로 연역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경험 연구는 일단 귀납적 방법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는 논문을 포함시켰다. 이 중에 양적 연구는 김봉순(1995)의 「‘텍스트 구조 표지’의 독해에서 기능」 연구처럼 실험 설계를 하고 가설을 수립한 후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증명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같은 귀납적 방법을 취했지만, 손영애(1994)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처럼 각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분석 연구는 분석 결과를 다시 數量化하는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 포함시켰으나 손영애의 연구처럼 자료의 질적인 분석에 그친 것은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본격적인 질적 연구로 문화기술지적 연구 방법을 도입한 것은 유동엽(1998)에서 보인다. 국어 지식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 언어 현상의 사례를 증거로 삼은 연구도 질적 연구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서덕현(1993) 「학교 문법의 경어법 기술(2)」이란 논문에서 경어법의 내용을 문장 수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도 질적 연구에 포함시켰다.

각종 교재론 연구와 관련하여 지도안이나 지도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지 않은 연구는 개념 연구에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박수자(1993)는 「읽기 교재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읽기 교재의 지도안을 개발하였으나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념 연구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를 실제 적용하였으면 경험 연구에 포함시키고, 결과의 분석 방법이 양적이면 양적 연구, 질적이면 질적 연구, 둘 다 사용되었으면 혼합형에 분류하였다.

개념 연구 난에서 '+'로 표시된 논문은([표2]참조) 전체적으로 개념 연구 방법을 취했지만 한 장 정도로 양적 연구 방법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전체 논문의 논지로 보아서는 개념 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한 장이나 한 장의 일부를 양적 연구의 방법을 응용한 조사 결과 등을 논거로 사용한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이충우(1991)의 「학교문법의 교육에 대한 몇 문제」라는 논문의 한 장은 '문법 교육과 어문 규정'인데, 여기에서는 「표준어 규정 및 한글 맞춤법」에 나타난 용례가 초중고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논문의 논지가 무엇이나'에 대한 결정 준거로는 논문의 서론에서 연구자가 연구 문제를 다루는 시각과 연구 방법을 밝힌 것을 참조하였다. 서론의 끝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스스로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와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의도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 2. 결과

### 가. 양적 연구 논문의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발표자의 분석과 분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후속 연구자를 위해 양적 연구의 경우에만 연구자의 이름을 표 속에 병기하였다. 각 난에 숫자와 함께 연구자 이름이 나온 경우는 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뜻한다. 예컨대 91년도 「국어교육학 연구」에서 개념 연구 항목에서 '6+1 이충우'라고 된 것은, 개념 연구가 모

[표2] 1991-2000년간 주요 국어교육 학술지의 연구 분류

| 분류<br>연도 | 『국어교육』               |                                    |          |                   |     | 『국어교육학연구』  |                   |          |                             |     | 양적<br>연구<br>합계<br>①+② | 총계          |
|----------|----------------------|------------------------------------|----------|-------------------|-----|------------|-------------------|----------|-----------------------------|-----|-----------------------|-------------|
|          | 개념<br>연구             | 경험연구                               |          |                   | 소계  | 개념<br>연구   | 경험연구              |          |                             | 소계  |                       |             |
|          |                      | ①양적<br>연구                          | 질적<br>연구 | 혼합<br>형           |     |            | ②양적<br>연구         | 질적<br>연구 | 혼합<br>형                     |     |                       |             |
| 91       | 6                    | 0                                  | 3        | 0                 | 9   | 6+1<br>이충우 | 0                 | 1        | 0                           | 8   | 0<br>(0%)             | 17          |
| 92       | 5                    | 0                                  | 2        | 0                 | 7   | 7+1<br>심영택 | 0                 | 0        | 0                           | 8   | 0<br>(0%)             | 15          |
| 93       | 1                    | 1<br>허만길<br>(81·82)                | 4        | 0                 | 6   | 3          | 0                 | 3        | 0                           | 6   | 1<br>(8%)             | 12          |
| 94       | 5                    | 1<br>이충우<br>(85·86)                | 1        | 0                 | 7   | 5          | 0                 | 4        | 0                           | 9   | 1<br>(6%)             | 16          |
| 95       | 12+1<br>민현식<br>(95호) | 3<br>박기룡(89)<br>이경화(89)<br>천경록(89) | 4        | 0                 | 20  | 5          | 1<br>김봉순<br>(5집)  | 2        | 0                           | 8   | 4<br>(14%)            | 28          |
| 96       | 5                    | 0                                  | 0        | 1<br>이주행<br>(91)  | 6   | 6+1<br>박수자 | 1<br>서혁<br>(6집)   | 1        | 0                           | 9   | 1<br>(7%)             | 15          |
| 97       | 12                   | 0                                  | 1        | 1<br>박기룡<br>(93)  | 14  | 5          | 0                 | 2        | 0                           | 7   | 0<br>(0%)             | 21          |
| 98       | 15                   | 3<br>이경화(96)<br>박덕유(97)<br>이충우(98) | 0        | 1<br>김태현<br>(96)  | 19  | 7          | 0                 | 5        | 2<br>박갑수<br>,<br>서혁<br>(8집) | 14  | 3<br>(9%)             | 33          |
| 99       | 9                    | 1<br>권병로<br>(100호)                 | 1        | 1<br>박기룡<br>(100) | 12  | 10         | 1<br>민병관<br>(9집)  | 6        | 1<br>서혁<br>(9집)             | 18  | 2<br>(7%)             | 30          |
| 00       | 13                   | 2<br>김봉순<br>(102)<br>전은주<br>(102)  | 1        | 0                 | 16  | 13+1<br>엄훈 | 1<br>임철성<br>(10집) | 1        | 0                           | 16  | 3<br>(9%)             | 32          |
| 총계       | 83+1                 | 11                                 | 17       | 4                 | 116 | 67+4       | 4                 | 25       | 3                           | 103 | 15<br>(6.8%)          | 219<br>100% |

두 7편이고 그 중에 한편인 '이충우'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이 응용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름과 연도를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참조하면 완전한 서지 사항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95년도에 양적 연구 항목에서 '1 김봉순'으로 표현된 것은 양적 연구가 한편 있었으며 연구자는 '김봉순'이란 뜻이다.

분석 결과, 전체 국어교육 관련 주제의 논문은 219편이었으며, 이중에 순수한 양적 연구는 모두 15편으로 6.8%에 불과하여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개념 연구에 부분적으로 응용된 양적 연구 5편과 질적 연구와 혼합형으로 연구된 7편을 포함해도 모두 27편으로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1995년에 나온 읽기 교육 전문 잡지인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30. N1-4호에는 모두 54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모두 25편으로 46.2%에 해당한다(다음 [표3] 참조).

[표 3]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30.(1995)의 연구 분류

|    | 개념연구      | 경험 연구     |         |          | 합계       |
|----|-----------|-----------|---------|----------|----------|
|    |           | 양적연구      | 질적연구    | 혼합형      |          |
| N1 | 0         | 6         | 0       | 1        | 8        |
| N2 | 4         | 5         | 0       | 1        | 10       |
| N3 | 9         | 3         | 3       | 2        | 17       |
| N4 | 3         | 11        | 2       | 3        | 19       |
| 합계 | 16(29.6%) | 25(46.2%) | 5(9.2%) | 7(12.9%) | 54(100%) |

이 학술지의 연구물에서 필자가 개념 연구로 분류한 것 중에는 양적 연구에 관하여 2-3쪽 정도로 연구자 사이에 논쟁을 주고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정통적인 개념 연구만을 따진다면, 개념 연구의 비중은 더 낮아지고 양적 연구의 비중은 더 올라가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5년은 [표2]에서 보듯이 국어 교육에서 양적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였는데도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2]에서 91년과 92년에는 양적 연구가 한편도 나오지 않다가 93년부터는 간단한 조사 연구가 나오다가 점점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양적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표2]에 나타난 15편의 양적 연구 논문을 다시 연구 방법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양적 연구 방법의 재분류

| 연구방법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계량연구 | 발달연구 | 합계 |
|------|------|------|------|------|----|
| 91   |      |      |      |      |    |
| 92   |      |      |      |      |    |
| 93   | 1    |      |      |      | 1  |
| 94   | 1    |      |      |      | 1  |
| 95   | 1    | 3    |      |      | 4  |
| 96   |      | 1    |      |      | 1  |
| 97   |      |      |      |      |    |
| 98   | 1    | 2    |      |      | 3  |
| 99   |      | 1    | 1    |      | 2  |
| 2000 |      | 1    | 1    | 1    | 3  |
| 합계   | 4    | 8    | 2    | 1    | 15 |

[표4]는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가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수행되지 않다가 93년부터 조사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중반에 들어서서는 실험 연구가 증가하였고, 후반으로 오면서 실험 연구뿐만 아니라 계량 연구, 발달 연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연구 주제 또한 본격적인 논의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간단한 실태 조사에서 시작하여, 읽기 영역의 실험 연구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반에는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 말하기, 듣기, 음성학, 어휘 계량등으로 다양화되었고, 연구의 설계나 논리, 자료 처리도 정밀하게 진행되었다.

### 나. 양적 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

이 시기에 나왔던 주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 15을 질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주요 관점은 양적 연구에 의해 쓰여진 논문들이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교육 실제에 준 영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집한 다음 인터뷰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논문의 교육 실제 개선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론에 기여한 정도 또한 국어 교육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나 추수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의 인용 정도, 색인에 의한 조회 정도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한 외재적 기준 없이 발표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 논문을 '연구 설계의 精緻性과 연구 문제의 중요성, 결과의 의의 등을 소개하고 간단히 발표자의 의견'을 덧붙이도록 하였다.<sup>6)</sup> 진술 순서는 연구 방법과 발표 순서대로 하였다.

#### 1) 조사 연구

조사 연구의 경우, 국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었다. 허만길(1993) 「공무원 국어 생활의 반성 및 향상 방안」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국가공무원 135명을 대상으로 국어생활능력과 연수에 요구 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문장작성능력 수준, 모임과 사회진행 능력 정도, 상관들의 의사결정 방식의 민주성, 비인격적 말씨와 근무 의욕, 대민 관계의 말씨, 국가기관의 연수원의 연수 내용 등이었다. 그 결과, 중견 공무원들은 자신의 국어사용 능력에 수준을 보통이거나 그 이하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어사용에 대한 연수 요구 사항은 높으나 정부 산하 연수 기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에서 단지 6.7%만이 관련 내

---

6) 이는 연구물에 대한 분석이면서 발표자의 주관적인 평가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읽다가 보니 발표자가 잘못 읽어서 연구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았나 두렵다. 양해를 구한다.

용의 연수를 함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초중등 국어과 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국어 교육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연수의 수요자는 국어사용 연수를 필요로 하는데, 연수 기관에서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지의 응답자를 우선 표집하고 분석 기법을 빈도나 백분위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좀더 다양화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충우(1994)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에서는 교육용 어휘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였다.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국어 교과서 사용 어휘를 대상으로 교육용 대표 어휘를 선정을 시도하였다. 어휘 사용 빈도, 교육에 기초적 어휘, 학습자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 등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정한 후, 대표어근 65어, 대표접두사 77어, 대표 접미사 98어, 대표 한자어형성소 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선정된 어휘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선정 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후술할 어휘 계량 연구 방법에 비해 주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박기룡(1995) 「고장 문화재 자료 활용을 통한 표현력 신장 방안」은 고장의 문화재를 조사하여 극본으로 구성한 다음 극화 학습 형태로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 적용하여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시도한 연구이다. 극화학습 후,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9-90%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극화 학습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점, 고장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 등은 교사의 준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극화의 내용으로 선정한 소재가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맞는지 여부, 극화 학습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학생이 자기 평가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무엇보다 극화학습 그 자체가 국어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란 점에서 좀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충우(1998) 「국어어휘교육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1)」은 어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이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어휘 교육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어휘 교육의 필요성, 교육이 필요한 어휘의 종류, 어휘 능력과 언어사용에 관련 정도, 어휘 선정 방법, 어휘 지도 방법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어휘 지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지도 내용이나 지도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결과 처리를 단순 백분율로 비교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경력별 학력별로 분류하였으면 그에 따른  $\chi^2$  검증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동원하고 결과 제시도 일목요연하게 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실험 연구

실험 연구의 경우, 인과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현상의 해명에 직접적으로 접근한다는 면이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경화(1995)는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음독 오류 형태와 읽기 과정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44명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과 글의 난이도에 따른 음독 오류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읽기 능력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글의 난이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아동에게 音讀하게 한 후 오독 분석(miscue analysis)한 결과를 F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위 독자가 하위 독자보다 문맥 정보의 이용이 높고 하위 독자는 어형적 정보의 이용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읽기 과정의 상호작용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라 생각한다.

拙稿(1995) 「도해조직자가 독해에 미치는 효과」는 중학교 2개 학급을 무선 표집한 후 설명적 텍스트의 도해 조직자(graphic organizer)와 직접 교수법을 이용한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t검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텍스트 구조 이론을 읽기 지도의 실제에 직접 적용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김봉순(1995)은 「'텍스트 의미 표지'의 독해에서의 기능」이란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의미구조 표지를 한 유표지 집단과 무표지 집단이 텍스트를 정확히 읽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실험하였다. 텍스트 구조 중에 집합 관계의 표지에 해당하는 '첫째, 둘째,……'와 같은 서수형 표지와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등과 같은 제시어형 표지어를 사용하였다. 중학교 3학년 도덕 과목과 사회과목 교과서 중에 글을 두 편 선정하여 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무선 배정하여 F 점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유표지 집단이 무표지 집단에 비해 글을 정확하게 읽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 이론 특히, 읽기 이론 중의 하나인 텍스트 구조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으로 사용한 글이 단 두 편이라는 점, 참여자의 독해 정도를 측정한 방법이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은 점등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혁(1996)은 「주제 구성 능력의 실태와 교수·학습 방안」이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텍스트의 주제 구성 능력 정도를 실험하였다. 피험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주제를 정확하게 구성하는냐를 실험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글을 '우주의 미래'를 다룬 설명적인 텍스트 1편과 이야기체 글인 '박쥐 이야기'라는 이솝우화 텍스트 1편이었다. 텍스트는 비교적 짧고 피험자의 스키마와 낯설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대학생 2개 집단 61명과 고등학교 1학년생 88명이었다. 두 글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주제를 구성하게 하였다. 결과는 내용 면이나 형식면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할만한 주제를 구성한 수는 전체의 28% 밖에 되지 않았으며, '부분적 적합성'도 갖추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42%에 이른다고 보고하면서 읽기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의 '실제'에 심각한 반성을 촉구한 연구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구성은 읽기 교육의 핵심이다. 피험자들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란 점을 고려하면 오랫동안 주제 구성 능력을 교육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가 28% 정도라면 읽기 교육 실체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대

상 텍스트가 단 두 편으로 스키마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연구자가 기대한 것과 달리 주제가 명시적인 설명적인 텍스트의 정확도가 낮고(19%) 오히려 주제 암시적인 이야기체의 정확도가 높게(38%) 나온 점등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경화(1998) 「설명적 담화의 구조와 독해」는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을 무선 배정하고 동일한 화제의 글을 수집구조, 인과 구조, 문제 해결 구조, 비교 대조 구조로 구성된 후 담화의 구조 유형이 독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명제간의 구성력이 강한 인과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의 글을 읽은 집단과 수집구조의 글을 읽은 집단간에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담화를 이루는 명제 구성의 긴밀성 정도가 독해를 촉진한다는 텍스트 구조 이론에 대한 지지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과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사이에 담화 구성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선행 연구와 달리 둘 사이에 독해가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기존 이론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덕유(1998) 「국어 어문규정의 인지 실태와 그 문제점」은 중학생 400명,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국어어문 규정에 등장하는 100개의 단어를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제시하여 정답률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답률은 중1 59.6, 중2 54.3, 중3 57.8, 고1 55.5, 고2 58.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학년이 올라가도 어문 규정에 관한 지식이 변화하지 않거나 내려가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어문 규정에 대한 교육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어문 규정 자체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방법의 검증이 아니라 평균 점수의 단순 비교를 가지고 내린 해석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다.

권병로와 박시균(1999)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호주대학생을 18명을 대상으로 유음과 겹자음의 발음 오류의 유형을 알기 위해 음성학적으로 실험하였다. '일요일'과 같이 유음이 포함된 11개의 단어 목록과

'갔다 : 가다'와 같이 겹자음이 나타나는 단어쌍 8개를 제시한 후, 녹음실에서 유음 목록은 1회씩, 겹자음 목록은 3회씩 읽게 하고 발음결과를 정밀 전사(narrow transcription)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한국어의 모음 사이의 유음( [r] )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였으며(72%), 겹자음의 경우, /ss/ : /s/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은주(2000) 「상호관계적 말하기 듣기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토론지도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상호관계적 토론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에는 40명의 경영학과 신입생이 배정되고, 비교 집단에는 40명의 생명공학과 학생이 배정되었다. 세 명의 교양과목 강사를 평정자로 하여 사전 사후 토론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는 상호관계적 토론 지도를 8차시 적용하였으며 비교 집단에는 전통적인 일반적 토론지도를 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토론 능력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 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비록 사전검사를 통해 실험에 참여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배정한 피험자 선정이 인문학 전공자들과 자연과학 전공자들로 배경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결과보고를 종합적인 정보부터 보고하지 않고 항목별 세부 정보부터 보고한 점, 사후 검사의 집단간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사후검사-사전검사'의 차이를 비교한 점등은 실험 연구의 일반적 관례에 벗어나는 것으로 필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적용한 '상호관계적 토론 프로그램'을 다른 연구자가 적용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 3) 계량 연구

계량 연구의 경우가 학계에 발표되었다. 민병곤(1999)은 「북한 고등중학교1~3학년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고찰」에서, Word 1·2·3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학적으로 처리하여 북한 교과서에 실린 어휘의 크기, 어휘의 종류, 품사별 구성, 사용율, 산포도, 기본도 등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어휘와 개별 어휘의 수, 고유어와 한자어 등의 구성 비율, 품사별 구성 비율, 자주 사용되는 300개의 어휘 순위 목록을 제시하고 남한 교과서 어휘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다.

임철성(2000)은 「컴퓨터 대화방 ‘글말’의 어휘에 대한 계량적 고찰」에서, 컴퓨터 통신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행위를 ‘글말’이라 칭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를 계량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일상적인 ‘말’과 ‘글’의 어휘 계량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글말’의 어휘는 ‘소개하기’와 같은 인사말의 빈도가 높으며, 품사 구성이 ‘말’과 유사함을 밝혀냈다.

필자의 견해로 이 연구들은 매우 치밀한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자료를 얻은 국어 교육의 기초 연구로, 민병곤(1999)은 통일을 대비하여 국어 교육의 정책 수립과 내용 결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연구이며, 임철성(2000)은 의사소통 매체가 크게 변화함에 따른 국어 교육의 ‘실제’와 ‘이론’의 새로운 대응을 제기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 4) 발달 연구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는 발달 연구에 해당한다. 횡단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설명적인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였다. 피험자는 이해력 검사에서 1212명 표현력 검사에서 42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해력을 검사하기 위해 5개의 설명적 텍스트를 개발하여 전문가에 의해 안면 타당도를 조정하였으며, 검사 방법은 선다형 검사법을 이용하였다. 표현력은 환경오염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였다. 연구 결과, 텍스트구조에 대한 이해력은 3, 6, 9, 11학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발달 차이가 크고 6학년 이후 7학년부터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하였다. 대체로 동일학년에서는 나열 관계와 상술 관계의 이해 수준이 높았다. 표현력의 경우 6학년 이후 상술 관계의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10학년 이후 다양한 관계 유형을 자유롭게 쓴다고 하였다. 이해력과 표현력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표현과 이해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에서 통합 언어 교육의 관점을 반영하여 설명적 구조의 경우 학년별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예를 들어 '6학년 읽기 :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6학년 쓰기 :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쓴다.) 텍스트구조의 발달에 있어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것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다.

### 3. 논의

#### 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양적 연구의 수는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나, 90년대 초반에 비해 증반을 거치면서 후반으로 올수록 꾸준히 나타나며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의 수준도 초반에는 조사 연구처럼 비교적 간단한 것이 나타났으나 증반을 거쳐 후반으로 올수록 실험 연구, 계량 연구, 발달 연구 등으로 다양해지며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통계적 방법도 단순히 백분율을 비교하는 것에서 t 검증, F 검증,  $\chi^2$  검증 등의 방법이 사용되면서 정밀하여졌다. 연구 문제도 실험 연구의 경우 읽기 쪽을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반을 올수록 쓰기와 말하기, 듣기, 어휘를 다룬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과 앞으로 양적 연구의 방법의 비중을 늘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관련지어 몇 가지 사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이 부족하였던 것은 국어교육 연구가 인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의 국어교육과는 교수 구성, 교육과정, 전공 교수의 구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양적 연구 방법은 출발부터 사회 과학적 연구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과학적 배경을 강조하는 양적 연구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 그 결과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국어교육 연구의 주제가 국어교육의 ‘방법’면보다 주로 ‘내용’면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본다. 이 시기에 있었던 주요 논쟁으로 국어교육의 내용을 기능으로 볼 것인가 문화로 볼 것인가였다. 이에 비해 방법론은 ‘직접 교수법’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은 것이 별로 없다. ‘방법’에 대한 논의는 교사, 학생, 환경 등의 사회적 구성소를 가지고 있다. 국어교육 방법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양적 연구 방법의 활성화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실험 연구와 텍스트 구조를 다룬 연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텍스트 구조 연구는 물리적인 텍스트를 조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나 학습자와 같은 심리적 변인을 다루는 것보다 독립 변인의 통제가 비교적 쉽다는 점의 결과로 보인다. 이경화(1995), 김봉순(1995), 줄고(1995), 이경화(1998), 김봉순(2000) 등에서 설명적인 글(expository text)을 대상으로 텍스트 구조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이해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집중 탐구하였다. 읽기 분야의 연구가 다른 영역보다 초기에 관심을 받은 것은 외국의 사정과 비슷하다. 그러다가 후반으로 올수록 표현력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김봉순, 2000), 말하기 듣기의 토론 능력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전은주, 2000)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와 말하기, 듣기, 국어지식(어휘 계량 연구) 영역으로 연구 분야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양적 연구의 방법이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연구 방법이 정밀하여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90년대 초 학위를 받고 연구에 가담한 소장 학자들이 좀더 국어교육의 ‘실제’를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국어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험 정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의 국어교육 연구자들의 세대 구분을 잠정적으로 크게 3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80년대 초반 이전부터 국어교육 담론 형성에서 주류로 활동하였던 학자들을 1세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과들의 2세대 연구가 있었으며, 90년도에는 국내에서 학위를 한 3세대 학자들이 가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세대 학자들이 선형적 방법으로 전통적 연구 방법을 존중하였다면 2세대 연구자들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국어교육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들까지는 총론적 접근을 하였으며 아직 '국어교육'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수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등장하고 대략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연령에 속하는 소장 학자들은, 국어교육 각론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교육의 전통과 새로운 연구 방법을 고민하면서 국어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 기간을 보였고 이에 대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경험 연구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양적 연구에 대한 비판과 해명

양적 연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양적 연구를 둘러싼 오해가 있다. 양적 연구 방법이 연구자 사이에 보편화되고 연구 방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제기와 오해가 해명되어야 한다.

연구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 방법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조용환, 1998). 그 진원지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에서 80년대 중반 지나친 양적 연구의 정도 때문에 그 반동으로 질적 연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를 토대로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가 한계가 있다고 논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국어교육계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앞의 [표2]에서 보듯이 국어교육계가 양적 연구를 제대로 한 역사가 아직 없다. 국어교육연구사의 이런 공백을 띄어 넘고, 바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은 온전한 국어교육 연구사를 구성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장애가 될 것이다. 양적 연구 방법론의 확립과 활성화는 국어교육계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홍역'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제대로 된 근대성을 경험하지 않음으로 겪어야 했던 값비싼 대가를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분명해 진다.

앞에서 필자는 국어교육학이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구자, 개론서, 연구분야, 전문 용어 등을 든 바 있다. 이제 끝으로 추가할 것이 '연구 방법론'이다. 그리고 그 연구 방법론은 '과학'이어야 한다. 국어교육 연구 실적이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집적되어야만 연구의 결과가 국어교육 '실제'를 좀더 잘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다. 양적 연구 방법은 과학의 한 방법이다. 양적 연구 방법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정신을 반영한 귀납적(경험적) 논리의 한 축이며, 무엇보다 국어교육 연구가 핵심적으로 해명해야 할 국어교육 '실제'를 직접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필자는 앞으로 전개될 10년 동안 국어교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양립 가능하며, 어느 방법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선택된다는 점이다.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두 방법은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어교육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국어교육 연구자 사이에 양적 연구의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다고 본다. 양적 연구 방법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와 그에 대해 해명을 시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오해다.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기대하던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 자료를 조작한다는 오해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사이에 가설을 증명해 보여야만 연구가 우수한 연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양적 연구에서 가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 결과로 인정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가설이 수락되지 않았다고 잘못된 연구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결과대로 인정하고 필요하면 반복된 연구를 통해 점점 국어교육 실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사 변인(경력, 성, 지도법, 개성 등), 학습자 변인(인지, 초인지, 태도, 흥미 등), 담화 변인(구조, 종류, 난이도, 친숙도 등), 환경 변인(학생 수, 학습 조건 등) 등과 같은 국어교육 실제의 복잡

함을 생각하면 동일한 주제를 다룬 양적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요컨대 연구에서(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개념 연구를 불문하고) 국어교육 현상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 결정적인 연구가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 결과가 집적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특히 양적 연구에서 단 한번의 연구 결과가 국어교육 실제로 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상반된 연구 결과가 연구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반된 연구 결과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성찰과 직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연구자에게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글의 수정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두고 당대의 주류 학자들이 팀을 짜서 거의 동일한 실험 설계를 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하면서 논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Britton et al., 1993:2-8). 그러나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도덕의 확립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지적 태도와 목표의 구체적인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양적 연구는 수준이 낮다는 오해다. 양적 연구는 소위 ‘현장 연구’ 수준이며, 국어교육의 실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하는 것이거나, 양적 연구는 천편일률적이며 숫자나 다루니 격이 낮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연구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개선에 기여한 논문을 들여보며 양적 연구가 많다. 외국의 경우지만 예를 들어, 읽기 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Dulkan(1978-9)의 연구도 읽기 지도가 중요시되지만 교사들의 실제적인 읽기 지도를 관찰해 보니, ‘이렇다할 지도 방법도 없으며 실제 지도 시간의 비중 또한 매우 낮다(노명완 등, 1988 : 220-1 재인용)’라는 조사 연구였다.

셋째,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오해다. 그러나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연구 논리는 다르더라도 연구기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연구들은 이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양적 연구의 결과를 보고 질적인 관점에서 다시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 이론이나 법칙을 얻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다.

넷째, 양적 연구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오해다. 양적 연구는 통계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통계의 복잡한 수식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통계학의 계산 원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양적 연구의 논리는 간단하며,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연구 수행이 더욱 간편하여 졌다. 예를 들어, spss 윈도우용은 자료의 값을 넣어주면 과거 도스용 시절에 연구자가 수 작업으로 통계 지시를 짜던 것을 클릭 한번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문서편집기를 배우는 것보다 쉽다. 따라서 양적 연구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오해이다.

양적 연구 방법이 더욱 보편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양적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면 연구의 질과 수준도 좋아질 것이다. 양적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어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양적 연구 방법 강의를 필수로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교육 관련 학술지 편집자들이나 대학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양적 연구에 의한 논문 게재나 발표를 권장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국어교육의場에서 ‘이론’, ‘연구’, ‘실체’가 관계를 맺는 틀을 제시하고, 국어교육에서 연구 방법을 분류하는 범주를 크게 개념 연구와 경험 연구로, 경험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형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최근 10년 동안 국어교육 관련 주요 학술지 두 종류에 실린 연구물 219편을 분류한 후, 양적 연구로 분류된 논문의 비중을 검토하고 그 질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국어 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적용 비중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가 증가하였고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었다.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한 논문은 모두 15편으로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불과하였다. 질적 연구와 혼합된 연구를 포함해도 27편으로 12.3%이며 외국의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에는 양적 연구가 전무하던 것이 중반을 거치면서 후반으로 올수록 꾸준히 나타났으며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의 종류도 초기에는 실태 조사 연구처럼 비교적 간단한 것이 나타났으나 중반을 거쳐 후반으로 올수록 실험 연구, 계량 연구, 발달 연구 등으로 다양하여졌고,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통계적 방법도 단순히 백분율을 비교하는 것에서  $t$  검정,  $F$  검정,  $\chi^2$  검정 등의 방법이 사용되면서 정밀하여졌다. 연구 문제 또한 읽기 교육 쪽에서 텍스트 구조를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반으로 올수록 쓰기와 말하기, 듣기, 국어지식(어휘, 음성학) 교육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었다.

둘째, 과학으로서 국어교육의 학문적 성립과 발전을 위해 양적 연구 방법이 현재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양적 연구 없이는 국어교육의 개념 연구가 발달할 수 없고, 국어교육 이론 형성이나 국어교육 실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어교육학의 성립과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 담화 공동체에서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양적 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어교육계에서 양적 연구를 충분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셋째,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연구기법의 측면에서 양립할 수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이 이 두 방법을 연구 기법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었다.

끝으로, 국어 교육 연구란 국어 교육 이론을 형성, 수정, 보완하고 국어교육 실재를 설명, 안내, 예언, 통제하는 과학적 노력을 뜻한다. 국어

교육에서 양적 연구는 국어교육 이론과 국어교육 실제 사이를 중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의 수집과 처리, 해석 방법이 객관적이며 자료를 수량화하여 연구 문제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경험 연구의 한 방법을 뜻한다. 양적 연구는 무엇보다 국어교육의 실제에서 사실을 관찰한다는 점과 국어교육학의 응용 학문적·사회과학적 성격을 생각하면 꼭 필요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연구 방법이다.

참고 문헌

<자료>

『국어교육』 73·74호(1991)~103호(200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학연구』 1집(1991)~10집(2000). 국어교육학회.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30(1995) N. 1-4.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교육평가연구회(1995), 『교육 측정·평가·연구·통계 용어 사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권병로·박시균(1999), “영어 화자에 대한 한국어 음성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 100호.

김봉순(1995), “텍스트 구조 표지’의 독해에서의 기능”, 『국어교육학연구』 5집.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 『국어교육』 102호.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민병곤(1999), “북한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9집.

박갑수(1998), “고소설의 안면 묘사”, 『국어교육학연구』 8집.

박기룡(1995), “고장 문화재 자료 활용을 통한 표현력 신장 방안”, 『국어교육』 89호.

박기룡(1997), “고장 문화재 자료 활용을 통한 고학년 쓰기 지도 연구 (1)”, 『국어교육』 93호.

박기룡(1999), “고장 문화재 자료 활용을 통한 고학년 쓰기 지도 연구 (II)”, 『국어교육』 100호.

박덕유(1998), “국어 어문규정의 인지 실태와 그 문제점”, 『국어교육』 97호.

- 박수자(1993), “읽기 교재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집.
- 서덕현(1993),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2)-상대경어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집.
- 서혁(1996), “주제구성 능력의 실태와 교수·학습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6집.
- 서혁(1998), “초등학생의 텍스트성 발달에 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집.
- 서혁(1999), “국어교육 정보화의 실태와 문제점”, 『국어교육학연구』 9집.
- 손영애(1994),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4집.
- 심영택(1992), “학문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집.
- 유동엽(1998), “한 국어교사의 말하기·듣기 수업에 대한 교육기술지”, 『국어교육학연구』 8집.
- 이경화(1995),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음독 오류 형태와 읽기 과정 연구”, 『국어교육』 89호.
- 이경화(1998), “설명적 담화의 구조와 독해”, 『국어교육』 96호.
- 이종승(1989), 『교육연구법』, 배영사.
- 이주행(1996), “대학 ‘교양 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91호.
- 이충우(1991), “학교문법의 교육에 대한 몇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1집.
- 이충우(1994),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국어교육』 85·86호.
- 이충우(1998), “국어어휘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1)”, 『국어교육』 98호.
- 임철성(2000), “컴퓨터 대화방 ‘글말’의 어휘에 대한 계량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집.
- 전은주(2000), “상호 관계적 말하기 듣기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토론 지도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 『국어교육』 102호.
- 정영훈(1994), “삶을 가꾸는 글쓰기 지도의 이론과 실제”, 『국어교육』

83·84호.

조용환(1998),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연구회 1998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천경록(1995), “도해조직자가 독해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 89호.

천경록(2001),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현황과 수준”, 『국어교육 연구 방법론』, 국어교육학회 15회 학술대회 자료집.

최영환(1995), “언어 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국어교육학연구』 5집.

허만길(1993), “공무원 국어 생활이 반성 및 향상 방안”, 『국어교육』 81·82호.

Britton, B. K., Woodward, A., & Binkley, M.(1993). *Learning from Textbooks*. Erlbaum.

Flood, J., Jenson, J. M., Lapp, D., & Squire, J. R.(1991).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Macmillan.

<초록>

##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분석

천 경 록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의 場에서 ‘이론’, ‘연구’, ‘실제’가 관계를 맺는 틀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분류하는 범주를 크게 개념 연구와 경험 연구로, 경험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형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최근 10년 동안(1991-2000) 국어교육 관련 주요 학술지 두 종류에 실린 연구물 219편을 분류한 후, 양적 연구로 분류된 논문의 비중을 검토하고 그 질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국어 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적용 비중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가 증가하였고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었다.

둘째, 과학으로서 국어교육의 학문적 성립과 발전을 위해 양적 연구 방법이 현재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양적 연구 없이는 국어교육의 개념 연구가 발달할 수 없고, 국어교육 이론 형성이나 국어교육 실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어교육학의 성립과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연구기법의 측면에서 양립할 수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병행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양적 연구 방법은 국어교육의 실제에서 사실을 관찰한다는 점과 국어교육학의 응용 학문적·사회과학적 성격을 생각하면 꼭 필요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연구 방법이다.

**【핵심어】** 국어 교육,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분석 연구

<Abstract>

##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al Journals**

**Cheon, Kyeong-rok**

This study has analyzed 219 research articles during 10 years(1991-2000) in two lea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al journals. In this study, researches are classified as conceptual research and empirical research, and the latter is divided into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d mixing research. This study has focused on how many quantitative researches are presented, and how well their quality. The results are below.

First, quantitative researches are very few in this period. Only 15 articles(6.8%) are presented. But as the latter half of decade, the quantity of research has growed and their quality better.

Second, quantitative researches should be presented much more to establish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science. Without quantitative researches, there is no conceptual research. theories, and practices.

Third, quantitative research is compatible with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wo methods could be interacted.

Because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t observe teaching practices and it is social studies as well as applicable scienc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s much more neede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content analysis